

# “실버포교, 가족이란 숲을 보라”

### 김응철 교수, 23일 조계종 포교정책연찬회에서 지적

“수십년 동안 사찰에 다니다 돌아갈 때가 다 돼 이웃종교로 개종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불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교계에는 상호, 병환 등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포교가 시급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상호와 호스피스 등 불교계가 맞춤형 노인포교 활성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노령화 시대, 실버세대를 위한 포교방안’을 주제로 제53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에서 사십구제와 천도제 등 입증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입문 전 스님과 신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철 교수는 “노인 포교의 문제점은 노인불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상조모임과 호스피스 등이 사찰에서 연계되면 필요한 경우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불교계에서 이같은 활동이 미흡한 이유로 정상인만을 포교대상으로 삼는 인식의 차이를 들었다.

김 교수는 “호스피스 서비스와 상호가 불교계에서 포교대상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이 같은 것들이 봉사의 한 방법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포교가 진행돼 오랫동안 사찰에 나와도 병이 들어 사찰에 나오지 못하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상적이지 않은 당사자여도 결국 가족포교 관점에서 본다면 더 큰 지

### “불교계 정상인들만 포교”

#### 힘들 때 외면...개종 이유

#### 사찰부터 상호·임종교육

#### 노인포교는 가족 관점서

지와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웃종교의 경우 임종 등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이러한 노인포교 선례로 불교계에서는 봉은사에서 진행하는 연화대학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봉은사 연화대학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찰에서 여가생활을 하



조계종 포교원은 7월 23일 '노령화 시대, 실버세대를 위한 포교방안'을 주제로 제53차 포교연찬회를 개최했다.

며 모임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노년기의 생활법률, 영화관람, 웃음치료 등이 진행돼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김응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 기도불공과 함께 상호모임, 임종교육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끝으로 △장기 외병 노인에 대한 불교복지적 접근 △임종 염불 및 호스피스 확대 위한 경전 편찬과 보급 △노인 봉사활동 현장 참여 문화 개방 △임종교육 및 노인 모임 공간 제공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불교계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 정모

마을 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한 노인포교 방안’과 오복경 충남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이 ‘사찰에서의 노인포교 활동방안’을 발표했다.

능행 스님은 호스피스에 대해 “노인포교에서 당사자와 가족공동체가 죽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문화를 전수받고 성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생사교육에 그치지 않고 호스피스 자원 봉사 등 실천 수행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오복경 회장은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훌륭한 자연환경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불교의 정신수양 중심으로 숲 힐링 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l.com

# 故 지관 스님의 원력담기 ‘가산불교대사림’ 14권 출간

### ‘소바라나’에서 ‘심로’까지 항목 수록

### 연인원 1만여명 투입, 2022년까지 발간 완료



불교 최고의 학승으로 꼽히는 가산 지관 스님의 원력이 서린 <가산불교대사림> 제14권이 출간됐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은 최근 “‘소바라나(소부라나)’부터 ‘심로(심로)’까지 총 8,042 항목이 수록된 ‘가산불교대사림’ 제14권을 출간했다”며 “가산지관대종사님의 영전, 그리고 사부대중에게 이 모든 공덕을 회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행된 국내의 사전 중 최대인 15만 항목을 담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은 1983년 5월 지관 스님의 발원으로 편찬사업이 시작됐다. 스님은 마지막까지 대대사업 원고 집필에 매진했으며 원고를 모두 쓰고 열반에 들었다.

1991년 9년 동안의 표제어 발굴 및 정리작업을 거친데 이어 1994년 한국불교기초원고작업에 들어간데 이어 1999년부터 매년 1권씩 출간되고 있다. 대사업 편찬사업은 2019년까지 총 20권이 편찬되며 2022년까지 보유판·색인판 2권 등 총 22권으로 마무리 된다. 편찬사업에는 30여 전문연구자들이 상근하며 항목발굴과

구성, 편수와 교열, 윤문 등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

김정배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이번 14권 서두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항목 하나하나마다 갓난아이를 돌보듯 보듬고 살피는 작업은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해마다 성과물로 출간되는 ‘가산불교대사림’은 연구원 식구 전체가 산통을 거쳐 낳은 각고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들은 “지관 스님의 원력이 서린 가산대사림 완간은 국교와 전통문화의 자존을 높임은 물론, 후학의 전범이 될 것”이라며 “스님의 위력을 봉대하고 고군분투하며 공부할 따름”이라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법인등록 시작

### 24일 공고... 내년 6월까지

조계종이 ‘법인법’에 따른 법인등록을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중단 소속 사찰 및 승려가 재산을 출연한 법인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종단에 등록해야 한다”고 24일자로 공고했다. 법인등록은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법인법’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사찰 또는 승려가 재산을 출연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7월 1일 이전에 법인설립이 완료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은 법인이다.

등록 대상 법인은 정관 개정을 통해 명칭에 ‘대한불교조계종’을, 목적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풍을 받든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조계종 승려로 구성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총무원에 통보하고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신종일 기자

## 갈등 ‘일단락’... 50주년 기념사업 진행키로

### 대불련, 8월 17일 세종문화회관서 50주년 기념식 개최

동문 간 갈등으로 파행으로 치닫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가 문제를 일단락 짓고 5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대불련은 7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박지연 회장은 “50주년 기념사업회를 준비하는 동안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간 갈등이 있었지만, 원만히 합의하에 해결하고 행사를 치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불련 동문의 갈등은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원유자)가 전국동문회(회장 홍종표)로 갈라지면서 불거졌다. 대불련총동문회는 50주년 기념사업회장에 홍종표 동문이 공동추진위원장에 위촉되자 50주년 기념식에 불참을 선언했으나, 7월 23일 제3차 이사회에서 50주년 기념식 동참을 결정했다.

임동주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은 “총동문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간 자적시비로

갈등이 생겨 기념사업의 차질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동문들이 기념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기념식”은 8월 17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50주년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 △감사의 글 낭독 및 감사패 증정 △대불련 50년 사진영상 △대불련 미래비전 선포(대학전법센터) 등이 진행되며, 2부 ‘저녁만찬 및 축하한마당’에서는 △대불련 문화패 축하공연 △역대회장 소개 등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8월 17~20일 동국대와 서울일대에서 ‘제4회 영부디스토크프’를 개최한다. Let's Go 빛나는 청춘!을 주제로 범등미션프로그램, 붓다's 커뮤니케이션, 청춘토크파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는 기념식을 앞두고 오는 8월 <사진으로 보는 대

불련 50년사 진리의 빛·일·빛(이하 대불련 50년사)>를 발간한다.

<대불련 50년사>는 1963년 창립된 대불련 50년을 네 시기로 나누어 대불련 활동의 흐름과 사건을 사진과 자료로 정리했다. 60년대는 창립과 구도의 열정, 70년대는 대불련의 전국조직으로 성장과 화랑대회, 8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는 민중불교 운동과 한국불교 1600년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통일운동과 남북 교류, 그리고 수행학교(템플스테이) 등 각 시대를 대변해 정리했다.

김남수 편찬위원회 편집장장은 “대불련 조직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다. 각 시대 별로 대불련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대학 생 불자의 의식과 대불련 조직의 형태 변화도 담고자 했다”며 “현재 ‘지회-지부-중앙’의 골간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대학생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불련의 조직적 고민들을 사진과 글을 통해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il.com

## 난치병 환아에게 자비 손길 전하다

### 자승 스님 22일 자비나눔 방문... 치료비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2일 매일 진행되는 자비나눔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브론코기병병원을 찾아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전달했다.

이날 대표로 후원금을 전달받은 어린이는 이보람(3), 우람(2) 형제와 박민수(2) 환아로 보람, 우람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근디스트로피를 가지고 태어났으

며, 박민수 어린이는 ‘선천성 대사질환 요소화로(OTC)’를 앓고 있다.

자승 스님은 이들에게 직접 염주를 선물하고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기원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34명의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2일 매일 진행되는 자비나눔 방문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브론코기병병원을 찾아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전달했다.

# 내 손으로 만드는 불교문화재 (3D입체 퍼즐)

3D 입체 퍼즐은 평면의 퍼즐 조각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교구입니다.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불교학교, 각종 법회에서 다양한 교육 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되어 유익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풀과 가위 없이 손쉽게 뜯어 만드는 입체 퍼즐입니다.

구입처 : **붓다북 02)953-7181**  
www.buddhabook.co.kr

 ◇ 상품명 : 부석사무량수전 ◇ 크기 : 120×85×65mm ◇ 조각수 : 23개 ◇ 가격 : 3,000원	 ◇ 상품명 : 미륵사지석탑 ◇ 크기 : 104×113×210mm ◇ 조각수 : 55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황룡사구층목탑 ◇ 크기 : 83×101×187mm ◇ 조각수 : 35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낙산사칠층석탑 ◇ 크기 : 120×136×192mm ◇ 조각수 : 52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경전사십층석탑 ◇ 크기 : 115×116×330mm ◇ 조각수 : 58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정림사지오층석탑 ◇ 크기 : 84×101×184mm ◇ 조각수 : 51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해인사대장경판 ◇ 크기 : 248×154×38mm ◇ 조각수 : 42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금산사미륵전 ◇ 크기 : 142×143×115mm ◇ 조각수 : 43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불국사 ◇ 크기 : 175×145×80mm ◇ 조각수 : 35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석굴암 ◇ 크기 : 200×122×115mm ◇ 조각수 : 22개 ◇ 가격 : 5,000원	 ◇ 상품명 : 다보탑 ◇ 크기 : 105×110×143mm ◇ 조각수 : 45개 ◇ 가격 : 3,000원	 ◇ 상품명 : 석가탑 ◇ 크기 : 85×92×142mm ◇ 조각수 : 21개 ◇ 가격 : 3,000원